



뮤지컬 '한국판 캣츠' 리뷰

객석 뛰어든 고양이, 관객 마음을 훔치다

역시 '메모리'였다.

뮤지컬 역사상 여자 배우가 부르는 가장 유명한 뮤지컬 넘버로 꼽히는 '메모리'는 관객들의 감정을 끝까지 끌어올리며 깊은 감동을 전했다.

21일 광주문화예술회관 대극장에서 막을 올린 한국판 '캣츠' 공연의 2부 마지막 부분. 친숙한 전주가 흘러나오며 귀여운 아기 고양이 실라바의 영롱한 목소리로 '메모리'가 시작됐다. 이어지는 그리자벨라의 노래. 화려했던 젊은 시절을 기억하며 과거를 회상하던 그녀의 노래는 마음을 울렸다.

실라바와 짧은 이중창에 이어 새로운 삶을 다짐하며 바다에서 몸을 일으킨 그리자벨라가 부르는 하이라이트 부분은 모든

신영숙의 메모리 압권... 26일까지 인터넷·현장예매 가능

회화를 펼쳐버리듯 한꺼번에 감정을 내리트리며 관객들에게 카타르시스를 경험케 했다.

외국 스탭진이 참여한 수차례 치러진 오디션 과정을 통해 옥주현과 더블 캐스팅된 신영숙은 오랜 기간 뮤지컬 배우로서 쌓아온 내공을 여실히 보여줬다. 가창력도 나무랄 데 없었고 무엇보다 감정이 실린 곡 해석은 순간, 가슴을 먹먹하게 했다.

공연은 관객들의 비평 소리와 함께 시작됐다. 객석 곳곳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고양이들이 놀란 관객들을 박수로 환호하며 작품에 빠져들었다.

실제 고양이를 방불케하는 사실적인 분장

과 한시도 가만히 있지 않고 움직이는 섬세한 몸놀림은 관객들을 시종일관 몰입하게 했다. '오페라의 유령',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 등을 만든 앤드루 로이드 웨버가 음악을 맡은 '캣츠'는 역동적이고 화려한 춤과 인상적이지만 아름다운 뮤지컬 넘버로도 많은 사랑을 받는 작품이다.

이날 공연에서도 마법사 고양이의 등장으로 알리는 '미스터 미스토렐리스'와 가차 검표원 고양이의 주제가인 '스킬블라스크'의 흥겨운 리듬은 관객들의 어깨를 들쭉이게 했고 드미터와 볼발루리나가 함께 부르는 '매혹적인 그리자벨라'의 감성적인 멜로디는



21일 '캣츠'가 공연중인 광주문화예술회관을 찾은 관객들이 로비에 설치된 고양이 캐릭터 앞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깊은 인상을 남겼다.

배우를 역시 외국 고양이 못지 않은 실력을 보여줬다.

작품의 피날레 곡을 부르는 올드퓨터로노미 역을 맡은 오페라 가수 출신 이희정은 풍부한 성량으로 무대를 압도했으며 '미스 사이공'의 주인공 김 역을 맡았던 도둑고양이 럼플러저 역의 김보경은 아크로바틱을 연상시키는 격한 몸동작에도 흔들리지 않는 노래 실력을 선보여 갈채를 받았다. 반면 귀엽

둥이 마법사 미스터 미스토렐리스는 조금 아쉬움을 남겼다.

'캣츠'의 재미중 하나는 고양이들을 직접 만나보며 함께 호흡할 수 있다는 점. '한국판 고양이'들은 외국 고양이들보다 훨씬 적극적이었다. 수시로 객석 사이를 오가는 고양이들 덕에 객석 톨로 곁에 자리를 잡은 관객들은 고양이를 직접 만지고, 눈을 맞추는 등 특별한 경험을 했다.

또마 관객들은 고양이가 무섭다며 잔뜩

웁크리기도 했고, 가장 인기가 많은 바람둥이 고양이 럼 터거와 춤을 추는 영광을 누린 여자 관객도 있었다. 한편 관객들은 로비에 설치된 다양한 고양이 사진과 기념 촬영을 하는 듯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티켓 가격 12만원~5만원. 오는 26일까지 계속되는 이번 무대의 티켓은 공연 3시간전까지 인터넷 예매가 가능하며 현장에서 구매할 수 있다. 문의 062-220-0541, 1588-0766.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산·바다 색의 아름다움 화폭에

황기록 개인전 무등갤러리

바다 풍경을 투명한 수채화로 담아내고 있는 황기록씨가 23~29일까지 광주시 동구 공동 무등갤러리에서 개인전을 갖는다.

이번 전시에서 그는 국내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산과 바다의 풍경을 사실적으로 표현한 신작을 선보인다.

거칠고 투박하게 풍경을 묘사한 뒤 여백을 살려 편안한 느낌을 주는 작품들이다.

또 열은 빨강과 노랑색을 사용한 화면의 색감이 화려하고, 물의 번짐을 통해 투명한 바닷물을 표현했다. 눈 높이 무등산의 웅장함과 설악산의 풍경 등도 수채화에서 느낄 수 있는 단아한 색채의 아름다움을 선사한다.



'섬진강 볼소리'

황씨는 한국미협전, 대한민국수채화작가전, 광주-가고시마 교류전, 히로시마 평화미술전 등 다수의 전시회에 참여했다. 현재 대한민국수채화작가협회 이사, 광주사생회 회원으로 활동 중이다. 문의 062-236-2520.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황영성 연작 '가족' 백화점 쇼핑백 수놓다

중심 서양화가 황영성(조선대 명예교수) 화백의 연작 '가족 이야기'가 신세계백화점의 쇼핑백과 포장지를 수놓는다.

신세계백화점은 황 화백의 '가족 이야기' 작품 이미지를 프린트 된 쇼핑백, 포장지(사진), 포장박스, 천연코르크를 만들어 가정의 달 5월 한 달 동안 전국의 매장을 찾은 상품 구입 고객들에게 무료로 나눠준다.

이를 위해 '가족 이야기'가 담긴 쇼핑백 30만 개, 포장지 10만장, 포장박스 3만5천장을 제작하고, 천연코르크는 각 지역 백화점별 행사를 통해 무료 배포할 예정이다.

신세계는 또 매장디스플레이, 전단 등에도 황



계 만들어진다.

한편 조선대 미대와 동 대학원을 졸업한 그는 제25회 몬테카를로 국제회화제 특별상(1991년)과 금호미술상(1993년) 등을 수상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부처님 오신날 맞이 봉축행사 다채

28일 금남로 제등행진 지역 사찰 문화한마당

불교 최대 절경인 불기 2553년 부처님 오신 날(내달 2일)을 맞아 광주·전남지역 불교계에서는 다양한 봉축행사를 마련했다.

(사)광주불교사암연합회(회장 성오스님)와 광주·전남 봉축위원회(공동위원장 영조스님·성오스님)는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지난 19일부터 '빛고를 연등축제'를 열고 있다.

축제의 하이라이트인 연등행사는 28일 오후 6시 동구 금남로 옛 전남도청 일원에서 열린다. 광주공원 연등법회를 시작으로 금남로-문화전당 앞까지 제등행진이 진행되며 문화전당 앞에서는 대동한마당이 펼쳐진다. 문의 062-376-3223.

지역 사찰들에서도 봉축법회와 함께 다양한 문화·예술행사를 준비했다.

해남 미황사(주지 금강스님)는 24일 연등축제(해남읍 일대). 28일에는 마을주민과 함께 하는 부처님 오신날 마을잔치를 갖는다. '제6회 땅굴 해남 어른식 노래자랑'도 개최하며 '부처님 오신날 템플스테이'(5월1일~3일 2박3일)도 준비했다. 문의 061-533-3521. 장성 백양사(주지 시몽스님)는 내달 2일

28일 금남로 제등행진 지역 사찰 문화한마당

법요식과 함께 외국인과 백양사 신도들이 함께하는 '한마음 노래자랑'을 개최하며 일일차집, 단청 그리기 등 특별행사도 연다. 문의 061-392-7502.

나주 신흥사(주지 원광스님)는 25일 오후 7시 경내에서 연등음악회 '길 바람 꿈'을 연다. 강산애, 송원진, 황성철씨 등이 출연하며 올해로 4회째를 맞는다. 부처님 오신 날 당일에는 장기자랑, 영정사진 촬영, 불화 그리기, 염주 만들기 등 문화마당도 준비돼 있다. 문의 061-334-2880.

광주 무각사(주지 청학스님)는 26일부터 무각사 문화관에서 봉축 기념 초대전 '만화경 암남진전'을 갖는다. 또 광주경찰청 전·의경들을 초청 태·과일 나눔행사를 준비하고 있으며 부처님 오신 날에는 연꽃등 만들기, 108 염주 만들기 등 봉축 체험 문화마당도 열 계획이다. 문의 062-383-0107.

광주 원효사(주지 현지스님)는 (사)제비신 행회와 공동으로 '해내라 우리 이웃! 행복 두 배 뽀뽀하기 나누기 행사'를 오는 26일 오전 10시 원효사 일주문 앞 등산로 일대에서 갖는다.

이번 행사는 이웃사랑과 나눔정신의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1천명분의 뽀뽀기를 마련해 나눔 예정이다. 문의 062-224-0090.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도깨비 나이트 클럽 사람들의 이야기 무대에

극단 까치날 '다크 나이트' 26일까지 공연일번지서

어느 날, 한국 연극의 메카 '대학로'의 배우들이 무대를 떠난다. 더불어 대학로를 찾았던 사람들의 발길 마저 뜰 때까지 연극과 아무런 인연이 없던 대학로 사람들이 직접 연극을 만들기 시작한다.

지난해부터 광주에서 활동을 재개한 극단 '까치날'이 '월드 오브 다크 나이트'(이하 다크 나이트)를 공연 중이다. 26일까지 광주 금남공원 옆 공연일번지.

뮤지컬 형식을 차용한 '다크 나이트'는 마음 속에 늘 '자신들만의 꿈'을 간직하고 살아가는 '도깨비 나이트 클럽' 사람들의 이야기와 그들이 작품 '로미오와 줄리

엣'을 무대에 올리는 과정을 유쾌하게 그리고 있다.

다소 파장된 연기가 매끄럽지 못한 부분도 있지만 배우들은 코믹한 캐릭터를 잘 소화해내고 있으며 노래 실력도 좋은 편이다.

창작곡 가운데 '로미오와 줄리엣' 듀엣곡의 아름다운 멜로디가 귀에 감기는 곡으로 인상적이다. 소극장의 공간적 한계를 바닥을 활용해, 영상물을 보여주는 아이디어도 신선하다.

하저한 작품의 배경이 '나이트 클럽'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초반부에 등장하는 춤과 노래 신은 너무 과한 감이 있다.

양수근 작가의 '대학로는 파업중'을 연출가 김영복씨가 각색한 작품으로, 이준식·김수정·김장동·진영선씨 등이 출연한다. 문의 1544-5010. /김미은기자 mekim@

Table with multiple columns for real estate listings, including location, price, and agent information.

상기물건 외 다수확보! 물건 모두 친절하게 상담 하여 드리겠습니다.